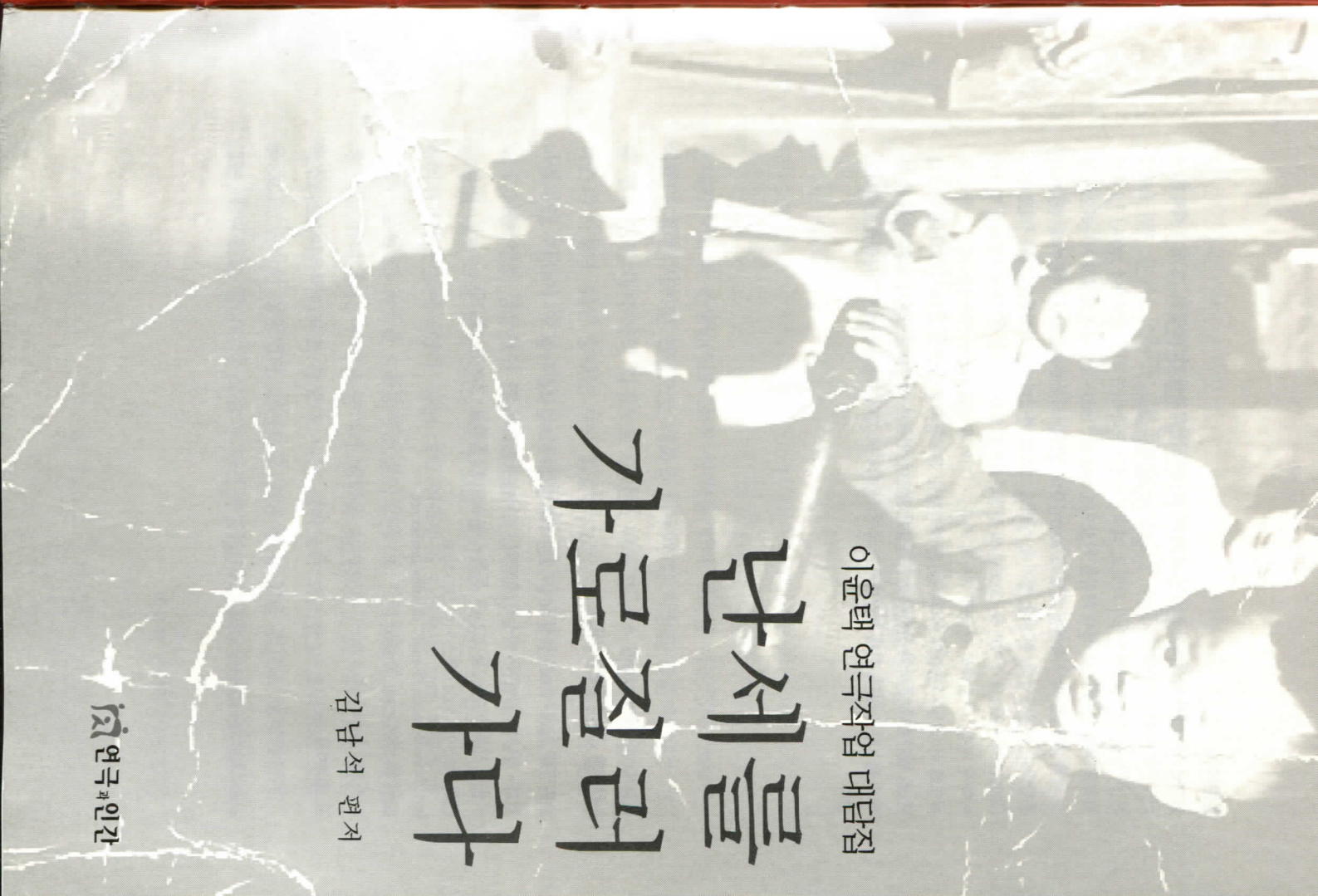


이윤택 연극작업 대담집

난세를 가로질러 가다

김남석 편저

연극 ⁴인간



김남석

1973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1992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뒤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9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평론 「여자들이 스러지는 자리-윤대영론」이 당선되어 문학평론가가 되었고, 대학원에서는 드라마(연극)를 전공하여 2000년 「오테석 회극의 개방성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1960~70년대 문예영화 시나리오의 영상 미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고려대, 서울예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산업대, 한경대, 경기대, 상명대 그리고 부경대에서 강의했고, 계간 『리토피아』(2001년)와 『오늘의 문예비평』(2006년)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구서로 『오테석 연구의 미학적 지평』·『오테석 연구의 역사적 사유』·『기억된 미래』·『한국의 연출가들』·『한국 문예영화 이야기』·『조선의 여배우들』을 발간했고, 문학평론집 『비평의 교향악』과 『머슴의 생태학』을 발간했다. 문학과 문학비평에 관심이 많으며, 연구와 영화를 좋아해서 평론과 연구를 하려고 결심하고 있다. 현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운택 만나러 가는 길

-이운택과의 대담집 작성기-

1.

내가 이운택 선생님(이후 호칭 생략)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2002년이었다. 물론 사적인 만남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시점을 말한다. 나는 그를 협회 위원 대 간사의 입장으로 만났고, 나의 임무는 위원인 그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위원 중에는 가장 젊었던 그는,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은 나였지만, 가까이 두고 지냈다. 가끔씩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편안하게 나는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갈 수 있었다.

사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책(독서)을 제외하면, 1992년 국립극장 대극장의 긴 계단 위에서였다. 나는 대학 연구반의 일원으로 그의 작품을 보러갔다(당시 그 작품을 <홍동지는 살아있다>로 기억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니었다). 선배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그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이운택이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보다 왜소했고 초라했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실망했다. 근사하고 고보에 차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평범했고 일상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눈빛은 남달랐던

이운택 연구책임 대담집

나세를 기원질러 가다

초판 1쇄 인쇄 · 2006년 4월 10일 / 초판 1쇄 발행 · 2006년 4월 15일

저자 · 김남석 / 발행인 · 박성복 / 발행처 ·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서울시 강남구 수유2동 252-9 / 등록 · 제6-04880호 / 등록일 · 2000년 2월 7일

전화 · (02) 912-5000 / 팩스 · (02) 900-5036

<http://www.worin.net> / E-mail : dramain@kornet.net

ISBN 89-5786-128-9 93680

값 20,000원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것으로 기억된다. 그 뒤 나는 그의 연출적인 <홍동지는 살아있다>를 보고 군대에 갔고, 그를 잊었었다.

나는 그의 평론과 시를 사숙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의 평론과는 다른 길을 걸어, 문학평론가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어릴 적 문학 공부와 비평의 한 과정으로만 기억되었고, 또 그렇게 그를 잊었다. 가끔씩 보는 그의 연구도 흥미롭되, 나와는 다른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다가 그는 위원으로, 나는 간사로 만나게 된 것이고, 생애 처음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윤택은 대단히 호감이 갔다. 그는 항상 말을 잘 했다.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는 타입이어서 보기 좋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아가고 있는 시점에 서 본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선(新鮮)'이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나는 그의 연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오태석에게 '죽어라하고' 매달려 있던 나였지만, 그 옆에, 어찌면 그 반대편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이윤택의 연구적 매력을 무시하기 힘들었다. 그의 연구를 빠짐없이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의 극단원들(지금도 다 친구가 되었지만)과 만나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두려워졌다. 친분이나 호감으로 인해 그의 연구, 그의 작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경계하고 재고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2.

2004년 나는 그의 스텝으로 공연에 참여했다. 국립극장 드라마트루기. 그 일이 끝난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대단히 긴장감 넘치고 어떤 면에서는 거부감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이윤택이 예술감독으로, 임영웅 선생님과 오태석 선생님이 개별 작품 연출가로 작업을 하는 줄 알고 국립극단에 들어갔지만, 실체는 달랐다. 그들의 연출 작업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은 애석했지만, 덕분에 이윤택의 여러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의 연출 작업을 지켜보면서, 완성되지 않는 연구 속에서 그의 지취와 특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문학평론가 이남호 선생님(그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다)이 그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언젠가는 평전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을 흘리듯이 한 적이 있다. 좀처럼 남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않는 분이었기에, 그 말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평전을 쓰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윤택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 인터뷰는 꼭 그려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에 힌트를 받은 것이기도 하다.

3.

그와의 대담은 이런 썰지만 녹록하지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시작은 내 의지였으나, 중간에는 그 의지를 포기해야 했고, 그러다가 서연호 선생님께서 인터뷰의 기회를 이어 주셨다. 언제나 그렇지만 재치를 생각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윤택과의 인터뷰는 장장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늘 바쁘고 언제나 나 이 작업만 끝나면 한가해진다고 했지만, 그 작업이 끝나면 더욱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좁은 시간을 헤치고 들어가 그에게 물고 또 물었다. 말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나하고 말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그였지만 어느 인터뷰에서는 스스로 그만 하
지고 말할 정도로 지친 순간도 있었다.

처음에는 솔직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다. 나 역시 마음속의 말을 다하
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적당한 긴장 때문이었을 것으로 나는 생
각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자, 둘 다 어느 정도 포기했고 또 서로를
믿게 되었다.

그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처럼 조심성 있게 말하지
않았다. 상대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나도
그에게, 내가 느낀 그(혹은 그의 작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말
하게 되었다. 앞뒤 모순을 골라내어 질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상당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감정은
대담 글의 성패 혹은 진실 유무와 관계없이 내 마음 속에 오래 남을 것
이다.

4.

대담은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녹취 해독은 전적으로 이상은의
몫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 어떤 인터뷰도 해내지 못했던, ‘소리
나는 대로’ 우리의 대담을 옮겼다. 나는 많은 인터뷰 녹취와 대담기가 사
후, 엄청난(?) 그리고 대대적인(?) 손질에 의해 바뀌는 것을 보아왔고, 실
제로 나도 그렇게 해왔다. 말과 글이 서로 달라, 말을 글로 바꾸지 않으
면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윽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소리나는 대로’
내용이야 현장감이 있다고 믿었고, 나는 방대한 분량에 지쳐버려 그 많
은 녹취 자료를 일일이 손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나는

어디서부터 편집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런데 이상은이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해 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주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가감은 했다(주로 내가 했다). 가
장 문제는 중간에 말이 끊어지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였다. 그대
로 두면, 틀림없이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살짝 ‘메스’를
대었다. 메스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말이 어색하고, 비문에 기감과 발
화자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이런 글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읽고
무식하다거나 말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난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오
해의 여지가 적으면,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단락을 편집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우아한 표현을 쓰는 일은
아예 하지 않았다(책의 편제를 위해서 제목을 붙이거나 장을 나누기는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인터뷰는, 이윽의 말의 알몸을 드러낸 인터뷰
이다. 다만, 작품이나 작가의 이름을 잘못 알아듣거나(내가 잘 몰라서),
사후 확인을 요할 내용(주로 이윽의 선생님의 사투리로 인한), 인터뷰
녹취 이후에 바로잡았다. 필요한 부분에는 원문 인용을 통해 참고자료를
보강했다. 참고자료는 객관적인 시각에 의지했고, 우리의 인터뷰에 관련
된 것을 먼저 수록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말을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원문과 발음표표를 주로 사
용했다. 사람의 말은 글과 달라서 일목요연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를 추
후 수정하지 않고, 원문과 발음표로 가끔씩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노력했다(이것은 이상은의 공이 크다).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 말의 이상한 흐름에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우리
의 말을 그대로 살리려 했던 우리의 고충과 고뇌를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
린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뒤 문맥도 안 맞는 말이 있어, 그 부분만 생각
하면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5.

인터뷰는 취재당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준비하고 말을 이끄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나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다. 나는 물리적 시간으로는 그의 생애를 통어할 힘이 없었고, 연구와 현장에 대해서도 박식하지 못했다.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생각했다. 그것은 내가 질문할 것을 미리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상당한 인터뷰 예비 자료를 읽고 그의 작품을 읽고 미리 질문서를 만들어 그에게 보냈다. 물론 인터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있었고, 어떤 선배는 실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의 언어가 중요하며, 답변자가 약점을 감출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 그의 약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인터뷰 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그의 작품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 이 시점(2004~2005)에서 그의 작품과 세상을 보는 눈을 듣고 싶었다. 그것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련미에 의해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나의 작전(?)은 성공했다고 본다. 그는 원래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지만, 더욱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연극 인생을 어느 정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나도 그의 작품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왜 중요한 작가인지, 왜 그를 연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터뷰를 읽을 사람들이 어떤 점을 보고 어떤 점을 기피하고 어떤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할 것인지 상상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 일으켰다. 다양한 관점도 느껴졌다. 나는 우리의 인터뷰가 이윤택의 연극 세계를 이해하고 그를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의 연구를 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사람과 세상

에 대한 한 인간의 인생 행로에 궁금해 하는 사람 두루 통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

6.

정확한 기록을 위해 이윤택과 인터뷰 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인터뷰 기간을 적어두겠다.

2004년 6월 14일, 국립극장 대중음식점 ‘해와 달’, 11시부터 3시 반까지
: 철망의 땅에서 일어나

2004년 7월 2일, 국립극장 예술감독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개판’의 현실에 ‘깡판’으로 응수하며

2004년 7월 5일, 국립극장 예술감독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2004년 8월 5일, 국립극장 하늘극장 분장실, 2시부터 4시까지
: 대중들의 편에 서서

2005년 1월 14일, 대학로 우리극연구소,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
: 극단 배우들과 함께 살아가며

2005년 2월 2일, 대학로 우리극연구소,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
: 20세기를 넘어, 신(新) 영웅주의를 선포하며

2005년 2월 15일, 대학로 우리국연구소,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
: 지난간 시대를 반추하는 자리에서

2005년 2월 23일, 국립극장 예술감독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 오래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5년 4월 24일, 밀양발 서울행 KTX 기차 안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 유랑평대의 삶 속으로

이러한 기록은, 미래를 위한 서지 사항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사정 상 한 번 인터뷰에서 4작품 정도를 논의했고, 인터뷰 지속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조교가 따라 간 경우도 있었고(2004년 6월 14일 첫 번째 인터뷰), 내가 밀양 연희단거리패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서울로 같이 올라오면서 인터뷰 했을 때(2005년 4월 24일 인터뷰)도 있었다. 국립극장 업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바람에, 인터뷰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2004년 7월 2일, 7월 5일), 인터뷰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 적도 있었으며(2005년 2월 23일), 연희단거리패가 <곡>에서의 첫 사랑>을 준비할 때 분장실에서 바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다(2004년 8월 5일). 때로는 연희단거리패의 일원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보조 진술을 한 적도 있었다(여배우 김소희). 이 모든 사실을 내 머릿속의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이 자료를 읽고 연구하고 비판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인터뷰는 2006년 3월 발간된 『이윤택 공연대본 전집』의 체계를 따랐다. 초연 날짜별로 작품의 순서를 정하고, 인터뷰 기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윤택이 작품 집필을 완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필요

한 사항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진술을 직접 채록해서 순서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쓰여 졌지만, 시기적으로 나중에 공연된 작품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공연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그런 작품은 '대본 전집'의 취지에 맞추어, 대본 집필을 완료한 시점을 완성 시점으로 간주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 수록했다. 대본 완성과 무대 연출의 엇갈림과 착오를 피하기 위해 초연 날짜를 제목과 작품 옆에 일일이 부기했다.

단계를 가로질러 가다

이윤택 연구 작업 대담 집

C O N T E N T S

이윤택 만나러 가는 길 3
- 이윤택과의 대담집 작성기

1.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

뿌리에 대한 기억 15
위험한 기계 22
시의 함께 배운 한글 31
아울러 사는 삶에 대한 동경 42
드디어 시인으로 50
극작가가 되는 길 63
다시 연극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69
극작의 시작 <추방> 72
떠나는 사람들 <삼각파도> 78
사랑의 제국(諸國) <신모의 섬> 90

2. '개판'의 현실에 '깡판'으로 응수하며

개 싸움판 같은 현실 <시민 K> 99
우리 민족 심성의 원형 <오구> 120
제구성 작업의 시작 <창부> 148
시나리오에서 희곡으로 <혜> 166
세익스피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 <백베드> 174
뜨거운 연극 <불의 가면> 194

3.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지상의 가장 낮은 땅에 임하여 <비보각사> 205
장삼이사의 역사 <이가전> 230
원작에 대한 번역 <우리시대의 리어왕> 243
창작과 모작에 대한 논란 <창버지를 입은 퍼우스트> 263
대중극에 대한 재조명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272
'나'에 대한 이야기 <문체적 인간 연산> 280

4. 대중들의 편에 서서

대중극에 대한 재조명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292
어머니의 초상 <어머니> 314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우리에게는 또다른 정부가 있다> 328
다양한 실험, 다양한 해석, 다양한 배우의 연극 <헬릿> 344
문화있는 수작 <이름다운 남자> 367
유령극단의 운명 <연극 삶의 형식> 373

5. 극단 배우들과 함께 살아가며

커피커의 꿈, 일상인의 뒷 <꿈의 기록> 379
변화된 <오구> 400
원전 <퍼우스트>에 다시 도전하며 412
신극과 대중극의 교차 지점에서 <순물의 여왕> 423



단세를 가로질러 가다

6. 20세기를 넘어, 신(新) 영웅주의를 선포하며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냐> 440
 20세기 인문주의자의 마지막 소망 <태풍> 459
 사랑의 힘으로 <일식> 471

7. 지나간 시대를 반추하는 자리에서
 일그러진 지화상 <가시밭의 환 송이> 485
 황어의 삶과 테크노의 삶 <도솔가> 502
 단세의 지식인 <시골선비 조남평> 513
 우리극 구조로 재해석한 <오이디푸스> 521

8. 오래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벗은 자들의 동행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531
 새로운 도전 '시나리오 <오구>' 553
 세계의 종말과 구원 '시나리오 <바보각시>' 567

9. 유랑광대의 삶 속으로
 연극인의 자리 <유랑극단> 575
 60년을 무대에서 연기한 노배우를 위한 연극 <길> 586
 세상을 변화하는 연극을 꿈꾸며 <떼도적> 597

1.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

2004년 6월 14일, 국립극장 대중음식점 '해와 달', 11시부터 3시 반까지

뿌리에 대한 기억

김남석 제일 먼저 딱딱한 질문인데요, 출생 년도라고 출생지, 그리고 가계..... 부친, 모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윤택 출생은 1952년 양력으로 7월 9일인데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양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윤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윤 5월 18일이에요. 음력으로 윤 5월 18일은 주기로 60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내 환갑이 바로 처음 맞는 생일이예요. 임진년 용띠데..... 출생지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08번지. 일제시대에 부산형무소가 있던 동네인데..... 지금은 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소설가 김정



내가 문학을 한 이유, 연극을 하는 이유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물음치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실적 환멸과 물음치를 뛰어 넘는 그 무엇..... 그 어떤 이상향을 꿈꾸었다. 그러나 내가 그러는 주인공들은 물음치한 현실과 충돌했을 때 패배하고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부로 생각하면..... 현실적 으로는 희생되고 패배하지만, 수용자들에게 어떤 자기 반성적인 계기와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이 내가 쓰는 시, 내가 해왔던 비평, 에세이, 그리고 연극일 것이다.

생각하는 구제, 혹은 연구는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배우(俳優)는 상황문자 그대로 인간이 아니다. 일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비평)의 측면에서 극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일정하게 흘러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낯하게, 아니면 너무나 일상적 시간에 맞추면서 살아들 간다. 나는 이게 싫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 명령에 대한 순응이고 시간의 노예가 되는 삶이다. 그래서 내 귀적이나 연출은 일단 일상적인 시간시킨다. 그냥 무성하게 흘러지나가는 시간과의 싸움을 서적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다음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하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시간이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시간에서의 세계..... 그에 따라 공회한다. 우리는 공건을 인식 안 하고 살거나 우리의 삶을 위치시키는 공건에 자신을 맞춘다. 그러나 공회 영화에서는 공건을 내가 만든다. 무대 공간이나 카메라로.....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공간, 내 관측되는 공건이 의미 있는 것이다.

- 이운택, 「이 책은 세상을 여행한 기록이다」

난세를 가로질러 가다

이운택 연극작업 대담집

김남석 편지



난세를 가로질러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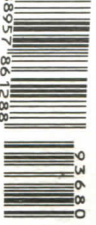
이운택 연극작업 대담집

김남석 편지

연극이 인간

연극이 인간

20,000원



ISBN 9788612881289

http://www.worin.net